

## 「장애인도서관」은 도서관의 미운오리새끼인가

며칠전, 부산에 있는 〈한국맹인복지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국점자도서관협의회〉에서 점자도서관 직원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현대도서관의 동향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강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야는 나에게서는 낯설은 주제이고 현장도 생소하고 공부도 한 일이 없어 완강히 거절하였으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요청이 간절하여 결국 말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내가 찾아가던 부산맹인복지관은 구포시장을 끼고 여러겹 돌아 산비탈 한적한 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대학 및 공공도서관에서 대하는 여느 사서들 보다 훨씬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관장과 밝은 인사를 나누었다. 청중도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상당히 밝아보였으며, 삶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밑게보는 얼굴은 없었다.

그들은 이번과 같은 전국규모의 점자도서관 직원세미나를 외부의 아무런 지원없이 자비를 부담하여 5회째 열고 있으며, 「점자도서관소식지」( 제 7호 : 1995.3 ) 등 자료집도 내고 지금 우리가 내 버리려고 하는 ‘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아끼고 매우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곳 총무의 말을 들으면 사서의 도움없이 점자자료의 자체분류표도 만들어 스스로 활용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대출도서관(Lending Library)의 시스템도 이룩하려고 한다. 참고로, 부산맹인점자도서관의 최근 현황을 보면 점자도서관 ‘한국사신문’ 등 1천3백여 책과 녹음도서로된 ‘부활’ 등 8백여 책 등 모두 2천1백여 책을 소장하고 있는데 1994년 연간이용자 4천2백명, 이용책수 5천3백여 책으로 해마다 20% 이상 증가추세에 있으며 독서취향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데도 아직 점자도서관은 독립건물이 없고, 자료증가에 따른 서고 공간 부족과 녹음스튜디오 증설(현재 2개), 점역실확장 등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열람실과 휴식공간을 갖춘 도서관 건물의 신축 또는 무상임대 건물의 이전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백만 이상의 장애인이 있고, 20만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있는데도 이를 위한 시설로는 전국 280여개 공공도서관 중「장애인 열람실」을 갖춘곳이 단 4개밖에 없으며, 독립된 점자도서관이 겨우 8개가 있을 뿐이다. (전재봉, “시각장애인에대한 도서관봉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이와같이 미약한 도서관 사정은 현장뿐 아니라 도서관학계에서도 도외시되어 이러한 문제를 다룬 연구논문도 고작 13편밖에 되지않는다. ( 같은 논문 참조 ).

GNP일만불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 차원에서도 이들을 도와야 하지만, 이제 우리 도서관측에서도 한국도서관협회나,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등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

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국점자도서관협의회」라는 도서관 간판을 달고 있는 우리의 식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이들을 미운 오리새끼처럼 외면을 하는 것인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규정하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도 제 21조 2항에 겨우 한 조항만 “장애자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의례적인 말만 있을 뿐이고 어떤 장소, 어느 부서에 어떠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할지 명문화된 조항은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에도 분야별로 많은 전문위원회등을 두고 있지만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을 도와주는 활동이나 실천을 보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어느 직제내에서도 장애인봉사 분야가 없으며, 공공도서관봉사의 많은 규정 속에서도 성한 사람들끼리만의 일들로 점철되어있다.

“장애인을 위해 정부가 베풀 수 있는 최적의 시설은 도서관이다”라고 했을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세운 공공도서관이 그들을 위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따라서 이 현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문헌정보학계에서도 무형의 ‘정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봉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

맹인복지관의 복도에 눈이 뜨이게 쓰여있는 [모금함]의 안내문을 읽고나서 이러한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

(최정태/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